東大時報

發行編輯人 白性都
印刷人 金鎭福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時報社 電話②1685・1686

週刊 (三十八號) 檀紀4289年6月16日發行

(國十五部一)

學護新幹部遂編成

學藝部만未定

本校常任委員에 李昌烈君

本校學徒護國團幹部級任員決定이 지난九日學護本部에依해서 發表되었다

즉 學徒護國團指導委員會에서 決定된 總・副委員長의 名單은 이미本紙三十七號에 揭載發表되었거니와 이에따르는 各部幹部級未定으로 校內의 一大注目之事가 되어오든바 드디어 지난九日 學徒護團本部서 十五名의 名單發表가 있었다 이로서 今年度 學護陣營部署는 全部決定(學藝部長・次長만未定)을 보았는데 앞으로 同團의 全力을 發揮가 期待되는바校內外의 嘱望은 과연크다

各 幹部名單

總務部長 卓光表(法四)
次長 李龍煥(經四)
學藝部長 未定
次長 〃
紀律部長 姜春日(法四)
次長 李泰根(政三)
〃 李慶柱(經三)
工作部長 韓盛愚(農四)
次長 蘇鎭浩(農三)
學生部長 李根翼(法四)
次長 李永燦(法四)
體育部長 趙明煥(農四)
次長 金龍哲(史一)
訓練部長 金琴信(哲三)
次長 朴嘉洲(佛二)
UN・學生部長 尹德基(英三)

農村啓蒙等成案

林學會任員會에서

지난五日 本校第七講義室에서 開催된바있는 林學會臨時任員會에서는 다음과같은 今年度事業案討議가 있었다한다

그첫째問題로는 從來와는달리 農學會와合하여 農林大學報를 來二學期初에 發刊할것이며 둘째로는 農村啓蒙運動에關하여 夏期放學中啓蒙班을 編成하여 地方巡廻講演會를 實施할것이라하는바 同啓蒙班運動에 關한 一般民의 認定이라는데 一致되었다고한다 그리고 林・林政・森林保護及利用等에關한 實質的인技術啓蒙이라는바 出發前約十餘日間의 特講이있으리라한다 그리고 其他希望者에限하여 森林植物採集及生態調査를 爲한 調査班을 編成하여 夏期放學中 實施豫定이라는바 會員多數의 協助를 바라고있다한다

教職科設置認可

文理科大學에

지난 十四日 敎務處에서 傳해온바에依하면 本校文理科大學에 敎職科設置가 文敎部로부터 認可되었다고한다 그런데 文敎部에서 敎職科設置를 認可한 理由로서는 師範系大學의 卒業生만으로서는 爾後擴張되는 敎員需給計劃上 많은 人員이 不足되기때문이라고하는데 本校에 認可된 設置科目은 다음과같다

國語國文科・英語英文科・史學科・物理科・化學科・生物科

그리고 同設置認可認可大學卒業生은 中・高等學校正敎師資格이 賦與되는것이다

第三次 徐隊復校生 本校에45名

敎務處當局에서 發表한바에 依하면 이번 第三次 除隊復校生이 本校에 四五名이라고하는데 이들은 모다 在學中 軍에 服務한 者들이며 軍의 特別措處로 復校하게 되는것이라고한다

東國輿地備考

市史編纂委에서發刊

서울特別市 市史編纂委에서는 東國輿地備考」를 出刊하였다 同書는 鄕土硏究資料에 큰도움이될것이라고한다

高大經濟學 討論會

本校側發表者李君

今般高大經濟學會에서는 第二回經濟學 討論大會를 來十六日부터十七日까지 同校大講堂에서 開催하기로한다

그런데 本校經濟學會에서는 其間洪性유敎授의 指導下에 『後進國經濟開發理論의輪廓』이라는 發表題目으로 練習을繼續하였다는바 同大會 本校側 發表者는 李昌烈(經三)君과 賈問 近圓 大學新聞의 活潑한 움직임과 質的向上은 自他가共認하는바이지마는 이에 併行하여 學生記者들의 相互親睦과 아울러 各大學新聞의 質的向上을圖謀하는 趣旨로서 이번 第三次 全國大學新聞記者協會(假稱)創立總會를 開催하게되었는바 여기에 參加할 學生記者는 全國大學新聞學生記者(見習記者는除外)로서 叙上의 趣旨를 贊同하여 多數參加를바라고있다

그런데 時日은 六月二十日(水)下午二時이며 場所는 鍾路區蓮建洞二八番地 大學新聞社(서울大學校醫大構內)이다

參加申請마감은 六月十九日로 되어있으며 各大學 新聞社 單位로 所定의 參加 申請書에 記入 提出하게 되어있다 申請場所는 大學新聞社內 『全國大學新聞記者協會發起人』앞으로 해야하며 參加費는 三〇〇圓(當日持參)으로되어있다 그리고 參加時에는 各自所屬 最新發刊新聞을 많이 갖이고와서 相互交換할수있도록 되어있다

全國大學新聞記者協會創立總會開催

20日大學新聞社에서

學藝部新幹部遂編成

夏期制服制定

希望者에 一、三〇〇圜式

學生處當局에서 發表한바에依하면 夏期制服一種을 制定하였다고하는데 學生層의經濟面을 考慮하여 簡素한 無色上衣一枚에 一、三〇〇圜이라고한다

그런데 同手續要領은 다음과같다고한다

一、洋服地白色모루링
一、價格 一千三百圜(市場價格보다 五・六百圜廉價)
一、方法 先金五百圜支拂로 殘金은 物品交換
一、計尺場所 本校第一講堂
一、申請期日 (自六月十二日 至六月末日)
一、洋服店名 國都企業社(鍾路二街未完成茶房三層)

史學會任員改選

지난一日下午一時本校第八講義室에서는 今年度 同學會任員改選이있었으며 改選된 任員名單은다음과같다

▲會長車完鎭(三年)
▲副會長權永重(二年)
▲總務部長 李相衡(三年)
▲同次長 張泰淳(二年)
▲編輯部長 金聖九(經三年)▲同次長 李鍾完(二年)▲涉外部長 金格基(二年)▲同次長 姜鎭贊(二年)等이다

學術講演

十八日六講堂에서

오는十八日午後三時부터 六講義室에서 哲學硏究會主催 學術講演會에는 韓國哲學會長이신高亨坤氏를 초빙 하디라하며 演題는 「하이덱카의 存在論」이라하는바 講演이 終了되면 學會員及 講士님들의 懇談會가있으리라한다

한글學會任員改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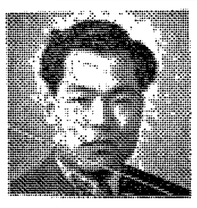
한글學會 第三十五回 定期總會는 지난十日同學會會議室에서 開催되었는데 이날 同會議에서는 任員改選이 있었으며 그의名單은 다음과같다

▲理事 崔鉉培 李熙昇 鄭寅承 韓甲洙 李崇寧 柳濟漢 權悳奭 金允經
▲名譽理事 張志영 金

洪性囿敎授歸國

지난5月21日如矣島空港着

五五年度七月에 美國 本校 洪性유敎授님은 其間 美國 經濟學界의諸般을 硏究하고 지난五月二十一日 歸國하였다 그런데 同敎授님의 滯美期間은 十餘個月間이었으며 美國 經濟學界의諸 人士들의 正當한 意見을 綜重하여 地方實情이나 學校實情에 맞는 行政이 되도록 硏究하겠다」고 말한데 對해서는 一般 注目을 끌고있다



陸軍第二訓練所見學次

全國大學學生代表一二五名이參加

지난 十二日 中央學徒護國團 主催 徒護國團長名儀로 本校에 보내온 通牒에 依하면 來十八日부터二日間 全國各大學 學生代表및 同學校新聞編輯者 中央學徒護國團 總運營委員長 學校護國團 學校護國紙 編輯責任者 各一名式을 派遣해달라고하였다는바 本校에서는 學護副委員長 中一名(未定)과 本報編輯局長 金鎭福氏(講師)가 指名된것이라고한다

그런데 當局者는 同行軍司令官및 駐韓各國大公使와 韓美將星多數 卒業士官의家族들의 參席 가운데 盛大히 擧行되었든것이다

이날 榮譽의 受賞者는 李炳侃 李相鼎 李相衡 (三年)

▲同次長 張泰淳(二年)
▲編輯部長 金聖九

哲學會討論會

金曜日마다開催

지난十一日 哲學會에서 敎授된바에 依하면 八九年度 陸軍士官卒業生 一六四名의 優兒를 畫出하였다

이날 同式에는 李大統領을 비롯해서 趙國 會副議長 民議員多數・金國防部長官・國務委員 그리고 『랜디제』美極東軍司令官 『하이트』美八公使와 韓美將星多數 卒業士官의家族들이 參席 盛大히 擧行되었든것이다

이날 榮譽의 受賞者는 李炳侃 李相鼎 李相衡 (三年)

▲同次長 張泰淳(二年)
▲編輯部長 金聖九

防衛의斥候들

十二日「陸士」卒業式盛了

安企部다

漢陽의東北方 『泰陵』 자리잡고있는 韓國防衛의 『陸軍士官學校』에서는 지난十二日 上午十時부터 八九年度 陸軍士官卒業生 一六四名의 優兒를 畫出하였다

이날 同式에는 李大統領을 비롯해서 趙國 會副議長 民議員多數・金國防部長官・國務委員 그리고 『랜디제』美極東軍司令官 『하이트』美八公使와 韓美將星多數 卒業士官의家族들이 參席 盛大히 擧行되었든것이다

이날 榮譽의 受賞者는 李炳侃 李相鼎 李相衡 (三年)

▲同次長 張泰淳(二年)
▲編輯部長 金聖九

學徒雄辯大會

出演選拔校內大會開催

中央學徒護國團 主催 第六回 全國 男女學徒雄辯大會가 오는二十九日부터 三十日까지 兩日間 市立劇場에서 開催된다는바 本校側 出演選拔校內 雄辯大會가 十九日午後 一時半부터 本校 第一講堂에서 開催되리라고 한다

演題는 自由題이며 所要時間은 十分以內라는바 十七日까지 學生處에 提出로록 要望하고있다

그런데 同選拔大會에는 學科別을不問하고 希望者는 期日內많은 希望하고있기를 希望하고있다

第七回全國 大學蹴球大會

本校選手出戰

其間 安養그라운드에서 合宿로練習中에있던 本校蹴球部에서는 지난十一日부터 서울運動場에서 열리고있는 第七回 全國大學 蹴球大會에서 熱戰을繼續하고있다 그런데 本校 蹴球部 選手는 다음과같다

主務 趙明煥
主將 金榮洙 (經四)
禹成華 (經四)・韓昌愚 (經四)・李承昊 (經三)・宋完龍 (經三)・張忠準 (國一)・金昌煥 (農四)・柳澤守 (經二)・李炳先 (經三)・沈載完 (經三)・李愚鉉 (農二)・고백수 (國一)

諸君들이며 전반戰에는 猛烈한 攻勢를 퍼붓고 三位에 崔聖默君이 選拔되었다고한다

原稿募集

今般本校哲學會에서 『論文叢』을發刊코저 左記要領에依據하여 原稿를募集하오니 會員諸兄의 많은 投稿를 바랍니다

記

(種目)
一、論文……八〇〇字內外
二、飜譯……五、〇〇〇字內外
(期間) 自六月十五日~至七月五日
提出處……哲學會學藝部

哲學會白

東國大學 蹴球大會

第二回選拔大會가 淸州 蹴球場에서 開催되다

지난二週金曜日 午後四時半부터 第十三講義室에서開催된 第二回選拔大會가 淸州蹴球場에서 開催되었는바 本校 蹴球部에서는 金顯洙(史一)・빠탑級 崔聖默(哲一)・쉴러級 諸君等이出戰한바 있는데 數많은 强敵들을 물리치고 三位에 崔聖默君이 選拔되었다고한다

▲總委員長一名에 副委員長三名이고보니 各部에서活動中 決裁(合議)? 順位에도 禍難하여 例年에比해 그 課營에 支障이 있다고들 했는데 그렇듯이 理論과實際와는 잘 符合이 않되는것이 現實인듯하다 하기야 三人副委員長이 잘 團合하고 互間에 讓讓之德을 살린다면 別無支障이겠으나 한창 자라고있는 大學四年生들이고보니 理論과 主張이 가끔 對立이되여 各部長은 어리둥절……

▲그러나 한줄안의學友之間이니 可及的妥協(善意의)하고 一致團合해서 東大蹴展에 이바지할이 可할듯 理論을爲한理論 組織을爲한 組織따위의 非現實的인 英雄心에서 脫皮하고 進取的인 建設的이며 學生自治에 明朗을찾기爲하여 날가빠진 생각은 새끗이 려버야할것이다 自己만이 가장옳고 自己外의 다른사람들의 受苦를獨占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는 非單學生側에서보담도 一般社會에서의 臨惡할이란 더 말할 나위도 있는것이다

▲健全하고 純수하고 明朗해야할 學園에서의 學生自治活動은 示範的이여야하며 自治의訓練을 通하여 民主主義的인 敎養을 提高하려는 學徒護國團理念도 바로 그렇다는 것을 分明히 알아야 할것이다

學術誌發刊에의 一言

社說

지난 二年동안 本欄을通하여 幾次에걸쳐 學生自治運動의 一部인 學報(誌)의 質的向上을 强調한바있거니와 近者에 發刊된 各學會別 學報를보면 그體制나 內容으로보아 그向上이 눈에띄임앞음으로 再次 論하려는 것이다

學報가 大學에있어서의 學生自治活動中 가장主要한 分野임은 再言의 餘地없으며 發表되는 學術의 內容의 程度如何로서 學術運動의 總和를 測定할수가 있다해도 過言이 아닐것인

즉 數많은 學會에서 各樣各色의 學報發刊을 準備中에있는데 鑑하여 가장 重히여겨야할것은 內容의 質的向上이다 따라서 幹部들은 原稿採擇에있어서 嚴位를決定해야하는것이다 비록 敎授・先輩일지라도 學報의 權威를생각한다면 當然한 批判도 받어야하는것이다 또한 學生들은그 論文의 方向을 過去의 先輩(學者)들이 남겨놓은 舊課題에 對한 資料紹介又는 說明에만 그일것이아니라 그분들이다룬 課題나體系에對한 檢討와批判으로서 學問의 發展을 꾀하여야할것이다

그렇기에 大家라고해서 그 遺産을 無批判的으로 받아드릴것이아니라 學生의 矜持로서 臨하여 學術의 眞理를 探究하는 自覺心과 勇氣를 갖어야하겠다고 自處하고있다는 말을들고있거니와 그程度의 學報다면 內容의 質的向上을圖謀하여야할것은 當然한 期待가 크거니와 崔長官은 新任談話로서 『自己는 歷代長官들처럼 就任當時부터 스로―강이 없으며 앞으로 硏究해서 努力하겠으며 何如間 民主敎育에 靈力할은 말할것도 없다』고 말한 謀하여 國家에 有爲할 民主國民養成에 힘쓰겠다고 한바 文敎行政의 지나 聯해서 敎育審議委員會 의 存廢問題도 앞으로 硏究해보아야하겠다』고 讓遊과 耐의 表情을지으며 말하였다고 傳해지고있다 그리고 『普通敎育 高等敎育을 莫論하고 敎育의 質的向上을圖

善良한民主國民養成할터

新任崔奎南文敎長官談

李선根씨의 뒤를이어 五代文敎部長官으로 就任한 崔奎南씨에 對해서는 一般의 期待가 크거니와 崔長官은 新任談話로서 『自己는 歷代長官들처럼 就任當時부터 스로―강이 없으며 앞으로 硏究해서 努力하겠으며 何如間 民主敎育에 靈力할은 말할것도 없다』고 말한 謀하여 國家에 有爲할 民主國民養成에 힘쓰겠다고 한바 文敎行政의 지나 聯해서 敎育審議委員會의 存廢問題도 앞으로 硏究해보아야하겠다』고 讓遊과 耐의 表情을지으며 말하였다고 傳해지고있다 그리고 『普通敎育 高等敎育을 莫論하고 敎育의 質的向上을圖

學藝部만未定

本校常任委員에 李昌烈君

本校學徒護國團幹部級任員決定이 지난九日學護本部에依해서 發表되었다

즉 學徒護國團指導委員會에서 決定된 總・副委員長의 名單은 이미本紙三十七號에 揭載發表되었거니와 이에따르는 各部幹部級未定으로 校內의 一大注目之事가 되어오든바 드디어 지난九日 學徒護團本部서 十五名의 名單發表가 있었다 이로서 今年度 學護陣營部署는 全部決定(學藝部長・次長만未定)을 보았는데 앞으로 同團의 全力을 發揮가 期待되는바校內外의 嘱望은 과연크다

各 幹部名單

總務部長 卓光表(法四)
次長 李龍煥(經四)
學藝部長 未定
次長 〃
紀律部長 姜春日(法四)
次長 李泰根(政三)
〃 李慶柱(經三)
工作部長 韓盛愚(農四)
次長 蘇鎭浩(農三)
學生部長 李根翼(法四)
次長 李永燦(法四)
體育部長 趙明煥(農四)
次長 金龍哲(史一)
訓練部長 金琴信(哲三)
次長 朴嘉洲(佛二)
UN・學生部長 尹德基(英三)

國際學藝

「모스코바」에서 「티토」元帥를 또다시 「모스코바」에 맞아

「모스코바」에 自己가 그를 歡迎하기 위한 犧牲物로서 提供될은 豫想못했을것이다

三一歲의 若冠으로서 自身의 主張하는바 胴力性을 要求하는 段階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工場과 港口들을그 指揮하여 命名하였던것이다 이제 「스탈린」은가고 세장은바 「스탈린」과 그의同調者들의 讚揚의 的이 되었을뿐아니라 「쉰스톤・처칠」 首相은 일찍이 말하기를 「모로토프」야 말로 蘇聯의 外交官으로서 누구보다도 最適格의 人物이라고 말했던 「

美國的學者

P·W·에머슨

李 浩 成譯

(美國이 나은 世界的思想家, 콘코드의 聖人, 에머슨 (一八〇三—八八二)은 一八三六年의 Divinity SchoolAddress와 그리고 여게 譯出한 The americanscholar 三篇에서 그의 中心思想을 表明하였다 『美國的學者』는 一八三七年 부덧자의 파이·베타·카파協會(Phi Beta Kappa society)에서 行한 講演이다 Dr.Holmes 로하여금 이 國의 知的獨立 宣言文(Our Intellectual Declarationof Independence)이라고 感激 激讚케하였다)

會長 및 會員 諸君

나는 우리新文學年度의 初頭를 當하여 諸君에게 祝意를 表한다 우리 年會는 希望의 會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충분한 努力을 말하는 會는아니다 우리가 會合하는 것은 古代 희랍人처럼 熟練의 藝技를 위한 것이아니며 歷史, 悲劇, 詩頌의 朗讀을 위한것도 아니다 또 투루바도오(譯者 十一世紀부터十三世紀까지 佛國의 트로바스에 盛한 戀愛詩人의 一派 처음에는 吟遊詩人이었으나 後에는 貴族의 保護로 宮廷詩人)의 詩人들처럼 戀愛와 詩의 集會를 위한것도아니다 그리고 또 英國이나 歐羅巴諸國의 首都에 있어서의 우리同時代人처럼 科學의 進步를 論하기위한것도 아니다 이때까지는 우리들의 祝日은 그저인젠 文學에 熱中할 수 있을 만큼 분주한 사람들사이에도 아직 文學 希望에 대하여 어떠한 變說心이 殘存하여 있다는 銀한 證據에 지나지않았다 이점에서는 우리國이 아직 모든 글을 읽는노라

肉體는 서러하 아아 나는 모든 글을 讀하려니 저멀리로 離하려니 沫沫九天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웃세는 꿈 흘해하는것을 나는아노라 이 마음 마다에 잠겨 잡을길 없노니 눈에 비치는 낡은庭園도 오오 밤 희미(白)을 시키는 종이 위에 비치는 내 탐루의 荒原한 빛도 또한 제 어린것에 걸물리는 젊은 女人도 나는 떠나려니 마스트 출렁대는 巨船 異國의 天地를 향해서 닻을 풀어라 권태는 獰猛한 꿈으로 티탄에 잠겨 붙고 건 흔드는마지막 離別에 아직도 마음을 붙이며 그러면 아마 마스트는 暴風雨를 부르면 바람에 부딪쳐 깨는 뒤집혀 難破하고 없어져 마스트없이 돛대없이 한작은 섬마저 없어…… 肥沃 그러나오오 나의 마음아 들어라 水夫 의저노래를

바다의微風

한 영 순

치였으며 國民에 對한責任을 지어야 하기때문이다 그의半生以上이 權謀術數를 일삼고서 어떻게 떠덧이 國民의 指導者가될 資格이 있을 것인가 그의길은 오직自己反省을하여 正當히 『스티이즈맨』에 奉仕하는 것이다

한편 『스티이즈맨』은 政事를 遂行하기爲하여 國民生活과 對 戰鬪係를 處理하기爲하여 善良한 『포리티슈안』의 多數協助를 받어야 된다 그리나 그는 決코 『포리티슈안』에게利用되어서는 않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마지矯角 死牛의 携이되고만다

本來 『스티이즈맨』은 理念的이고 現實的이아니기때문에 政事에 對한 實戰化가 容易치않기쉬운것이다 그反面에 『포리티슈안』은 現實的이고 理想的이아니기때문에 處理가 過渡的이며 不安定한 一種의 極度概念이지만 이것은 一人이 完備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一人의 完備할 수 없는 것의 性分을 가지고 그것을 現實의 國家 問題를 調解決해나갈 때에는 希少한것이 아니다 이러한 『스티이즈맨』과 『포리티슈안』의 性分을 가지고 그것을 調和하고 결어다니는 것과 같다 — 훌륭한 손가락 목 胃 팔꿈치는 있지만 사람은 없다 이리하여 事物로 變更되어지다 많은 事物로 變更되어있다 栽培者는 먹이를 거두기 위하여 들로 보내어진 사람(man)이지만 自己 職分의 참다운 威嚴을 發揮하고 生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의 政治家들은 一律的으로 『포리티슈안』이라고 稱하여도 過言은아니다

四

『포리티슈안』은 決코 『스티이즈맨』이될 性分이 없다 그는 그 資格이 없어서 韓國의 政治家들은 一律的으로 『포리티슈안』이라고 稱하여도 過言은아니다

『포리티슈안』은 決코 『스티이즈맨』이될 性分이 없다 그는 그 資格이 없어서 韓國의 政治家들은 一律的으로 『포리티슈안』이라고 稱하여도 過言은아니다

「스테이즈맨」과 「포리티슈안」

金 基 洙 敎授

政治時評

一 普通 政治家의種類를 『스테이즈맨』(Statesman)과 『포리슈안』(Politician)으로區分할수있다 前者는 大政治家 後者는 小政治家 또는 政治家를말한다 다시 좀더說明한다면 前者는 國家·民族을 爲한 大指導者를 말하고 後者는 政權을 爲한 權謀術數를 弄하는 者를 말한다

그리고 實踐으로서는 前者는 理念的이고 後者는 現實的이라고 볼 수있다 人格的으로 볼 때 前者는 理想主義者이고 後者는 現實主義者이다

二

本來 完全한 政治家는 上述의 兩者의 性品을 具備해야 하겠다 卽 政治人은 마땅히 國家大計에 對한 健全한 識見을 가지고그것을 現實의 國家 問題를 調解決해나갈 때에는 『스티이즈맨』과 『포리티슈안』의 兩者의 性分을 타고났고 또그가 政治人이 될때까지 이미 政事를 妄은 世紀에 希少한것이 아니다 이러한 政治人을 期待하고있으며 이러한 政治人은 自己의 高見斷案을 實踐하기 爲하여 政略 卽 權謀術策을 해야할 것이다 그러한 그러한 政治는 어디까지나 公明正大한 것이라야한다 그것이다 그는 理念과 現實을 調定하는것이다따라서 『스티이즈맨』은 恒常 『포리티션』을 兼備하는 것이다 그는 理念的이고 現實的이고 恒常 이러한政治人을 期待하고있으며 이러한 政治人을 많이가질수록우리國民은 더 幸福하게 살수있을것이다

그런데政治人이 單只 『포리티슈안』에 끌지고 『스테이즈맨』의 性品이 缺如할때에는 그는 政權慾에盲目이고 國家民族을 爲하기보다 自己自身의 野慾에 서 手段을 가리지 않게 된다 이때만 『포리티슈안』은 決코 『스테이즈맨』이 될 性分이 없다 그는 그 資格이 없어서 韓國의政治家들은 一律的으로 『포리티슈안』이라고 稱하여도 過言은아니다

四

『포리티슈안』은 決코 『스테이즈맨』이될 性分이 없다 그는 그 資格이 없어서 韓國의政治家들은 一律的으로 『포리티슈안』이라고 稱하여도 過言은아니다

人間은 이리하여 事物로 變更되어지다 많은 事物로 變更되어있다 栽培者는 먹이를 거두기 위하여 들로 보내어진 사람(man)이지만 自己 職分의 참다운 威嚴을 發揮하고 生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의政治家들은 一律的으로 『포리티슈안』이라고 稱하여도 過言은아니다

人間은 이리하여 事物로 變更되어지다 많은 事物로 變更되어있다 栽培者는 먹이를 거두기 위하여 들로 보내어진 사람(man)이지만 自己 職分의 참다운 威嚴을 發揮하고 生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의政治家들은 一律的으로 『포리티슈안』이라고 稱하여도 過言은아니다

四

『포리티슈안』은 決코 『스테이즈맨』이될 性分이 없다 그는 그 資格이 없어서 韓國의政治家들은 一律的으로 『포리티슈안』이라고 稱하여도 過言은아니다

本來 『스테이즈맨』은 理念的이고 現實的이고 恒常 『포리티션』을 兼備하는 것이다 그는 理念과 現實을 調定하는것이다따라서 『스테이즈맨』은

經濟學의 움직임을 보기爲하여

編輯室 抄譯

④

一般的으로 이와같은 意味에있어서의 動態理論의 展開는 從來의 靜態的均衡論을 否定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意味에서 近代的動態理論에 있어서는 靜態的 均衡論을 그안으로 包括시키는 積極的인 性格에서 動學을 基礎로 하여 從來의 靜態理論을 그 根本的

現代詩學의問題

A·매끄리—슈 作 ③

첫째로 分析的인 진술 또는 全的으로 客觀的인 진술이 될려는 企圖는 觀察者에 한 아무런 關係도 없이 이루워지는 것이며 觀察者는—觀察者로서의 自身인—둘째 속에 內包되어지는가?

結果的인 差異는 自身을 포함하고있는 關係가 첫째에 依해서가 아니라 둘째에 依해서 創造되어 진다는 事實이 되지않는다는 것인가?

그리고 終面的인 差異는 첫째가 아니며 둘째가 우리들하여금 事物自體를 알겠금—事物이 무엇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겠금 하는것인가?

내 生涯엔 詩(순수한)에 依한 知識과 말하 한다는것이 무개의 例속에서 무가지 相異한 意味로 使用되며 威에 依한 實在에서의 抽象에 依한 知識사이에 있는 差異를 意義化시킬수있고 또는 변하면서 흘르는 流動性인 世界속에서 實在의 知識을 찾을것이며 또는 世界속에서 實在의 知識을 찾을것인가? 모두가 油象의 拔 術인가 왜냐하면 科學은 自體이기 때문이다 그 自體이기 은 科學때문이인가?

오로지 抽象을 通해서 만이 우리네 生活 經驗속에서 眞實된것을 찾을수있는가? 그리하야 想像컨대 우리들속에서 무엇이 찬된것인가?

우리는 만것을 必要로 하며 아는(知) 데 關한 다른方法—即그 밖에있는 世界와 이곳에있는 世界가 그것들과 같은 만것으로—說明은 抽象에 依해서 支配되 어지며 그속에선 과程度의 抽象으로 곰 겨놓는것에 依한것이아니라 우리自身을 그들이 그대로—사람과나 무가 認識되 衝動속에서 서로서로 마주치며 사람과 사랑이 서로서로 마주치는—그들과부 닥치게하는것으로서 우리들에게 有用하게 만드는 事物을아는 方法을 必要로 할것인가? 아주옳사 하는 質問은 우리가 꼭 대야만하는 것은 아니다 世界엔 아무런 義務도없다 사람은 만약이 그사람이 抽象에 對해서 冒 險을 갖고있다면 全生涯를 투하여 抽象위서 살수있다

二

그리고 大部分의 우리들은 科學者 뿐만아니라 이現世에서 살고있는 우리以外의남어지많은 사람을 卽그들의 나는 날이 統計的이며 名稱的이며 장사丟來를하는 사람을 質問은 우리가 行爲 二者 擇一이우리들에게 있다는것이다 그리고 이말속에서 爭點은 自體를 교사에게 提議한다

三

여러 單科大學다綜合大學은 義務를 賦課하기위해서 存在하는것이 아니다 選擇을 啓示하기위하여 存續하고있다 한選擇이 만것을 훨씬 알고있는 우리의 그것과 같은 文明속에선 文 明속에서 依해서支配되 어지며 그속에선 여러사람들은 점점적게 世界의 經驗과 關係할수 있으며 自己身分과 關係한다 萬有에 經驗과 自身이 첫째로 抽象的인 말로 번역되어 저 왔다면 卽—外國語 처럼 文明속에서—그 香澤一에 對한 理解가 긴급하다 쥐은 世代앞에 놓와 갖道具를 갖고있다—우

우리는 諸道具를 온 制限을 默的을 그리고 그諸抽象과함께 살고있 이 이 使用되 지않는다 더군다나 여러 抽象은 나누며 또 파탄속에事 物을 整理하기는 놀한 만한 賢明한 道具이다 그러나 그들것은 여러 事物을 그러나 그들은 함께 하는 멘거 이 使用되지않는다 그리고 事物이무슨目 的을 依한다는가를 決 定지을때 아예 使用되 지않는다

抽象은 여러 事物을 整理再整理할것이 잘 活動했던 광자한婦 人네들의 새로 卒業하는 어떠나 너무빨리 到達하는 感覺을 渡 했던것이다 『월신 成就한 가지의 敎化에對한 無視는 對한 諸原因을 말 하여왔을때 스티분 슨氏는 내겐그렇게 보 였던것이다 그러나『월신 成就한 가지의 敎化에對한 無 視는 對한 諸原因을 말 하여왔을때 스티분 슨氏는 前에보다 더 공감그와같이 말했을때 나는 스티분